

No.21

Japan Weekly Digest

2010. 2. 8 ~ 2. 14

□ 금주의 이슈

- 도요타에 이어 혼다도 리콜 실시
- 기린·산토리 통합 무산 발표
- 일본 도산기업 부채총액 2.6조엔

□ 일본 정재계 소식

- 하토야마 총리, 북방영토 반환요구전국대회 참석
- 경단련 부회장단 선임
- 에다노 행정쇄신상 취임
- 한일 외무장관회담 개최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경산성, 인도 도시정비사업에 참여 의사
- 경산성, 긴급경제대책 발표
- 도시바, 플래시메모리 신공장 대규모 투자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 ‘일본의 전기자동차산업 동향과 시사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0. 2월)

□ 파트너를 찾습니다

- [한국의 미술품과 전통공예품] 톱아트
- [(자동차용)사출성형금형] 미시마코산
-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
- [주파수변환장치용변압기] 키타시바전기(주)
- [폴리카보네이트 파이프] 싱크로테크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3-9888)

□ 금주의 이슈

○ 도요타에 이어 혼다도 리콜 실시

- 도요타 자동차는 8일, 하이브리드카 신형 ‘프리우스’ 브레이크 불량을 둘러싼 문제로 일본과 미국에서 리콜을 밝힌 데 이어 혼다도 에어백 결함으로 44만대 리콜을 발표
- 혼다는 운전석 측면 에어백이 터질 때 내부장치가 파손되어 금속 파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5개 차종 37만8,700대를 리콜
- 프리우스 리콜대상은 작년 4월에서 올해 1월까지 판매된 최신 모델 약 30만대 (국내 : 19만9,666대, 미국 : 약 10만대)

○ 기린·산토리 통합 무산 발표

- 기린 홀딩스와 산토리 홀딩스는 8일, 마지막까지 경영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무산되었다고 발표
- 세계최대급의 주류·음료회사 탄생을 목표로 교섭을 해왔으나 통합비율, 신규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산토리 창업 일가의 경영참여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세계 식품회사 08년도 매출액〉

세계 식품 회사	네슬레 (스위스)	9조 3,355억엔
	유니레버 (네덜란드)	5조 495억엔
	PepsiCo (미국)	3조 9,198억엔
	Kraft Foods (미국)	3조 8,246억엔
	기린·산토리(일) = 교섭 무산	3조 8,164억엔
	Coca-Cola (미국)	2조 8,950억엔
	기린 (일)	2조 3,035억엔
	산토리 (일)	1조 4,627억엔
	아사히 (일)	1조 4,627억엔
	아지노모토 (일)	1조 1,903억엔

○ 일본 도산기업 부채총액 2.6조엔

- 도교상공리서치가 8일 발표한 1월 전국기업도산상황에 의하면, 부채총액은 작년대비 3.1배 증가한 2조 6,032억엔을 기록
- 도산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던 정규직의 수를 나타내는 ‘종업원피해자수’는 2만2,893명(종업원피해자수가 2만명을 넘는 것은 7년10개월 만에)

□ 일본 정재계 소식

○ 하토야마 총리, 북방영토 반환요구 전국대회 참석

- 하토야마 총리는 7일, 도쿄에서 열린 『북방영토반환요구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정권교체 이후, 가장 달성하고 싶은 것은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이다」라고 말해, 영토문제 해결에 대한 결의 표명
- 2섬의 반환·평화조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

○ 경단련 부회장단 선임 과거최대 18명

- 경단련은 8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5월부터 요네쿠라 회장을 보좌하는 18명의 부회장단을 발표(과거최대 규모)
- 유임된 인물 이외에 새로 부회장으로 내정된 인사는 코마쓰 사카네 회장, NTT 미우라 사장, 히타치제작소 가와무라 회장, 경단련 나가무라 사무총장

○ 日, 행정쇄신상에 反오자와파 에다노 취임

- 하토야마 총리는 10일, 센코쿠 국가전략상이 겸직하고 있는 행정쇄신상에 反오자와파인 에다노 유키오 중의원을 임명
- 에다노 의원을 행정쇄신상에 임명한 것은 자신의 정치헌금 문제와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로 이미징악화와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의식한 처사라는 분석
- 에다노 행정쇄신상은 사이타마 지역구에서 6선. 민주당 당내에서 정책통으로 통함

○ 한일 외무장관회담 개최(2.11)

- 오카다 日외상은 1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 日외상은 "100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한국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이 깊이 상처받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그 외에 "올해는 한일관계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일문화교류회의를 통해 양국 국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싶다"고 언급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경산성, 인도 도시정비사업에 참여 의사

- 경산성은 10일, 인도 서부 2도시에서 진행예정인 환경배려형 도시정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일본 전력회사나 전기회사 등을 포함한 관민 기업연합을 형성하기로 했다고 발표
- 10일 개최한 「스마트·커뮤니티 관련시스템포럼」에서, 인도정부 관계 기관과 합의
- 차세대 송전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위시한 사업으로, 기업연합은 내년도 중에 현지 조사를 마칠 방침

○ 경산성, 긴급경제대책 진행상황 발표

- 경산성은 8일, ‘내일의 안심과 성장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 주요 내용은 1)고용, 2)환경, 3)국제표준화, 4)긴급유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공표

주요 대책	진행 상황
고용대책	1. 취업설명회 실시 12월말까지 162회 개최 2. 경제단체·기관에 적극 채용을 요청
환경대책	1. 에코포인트제도 연장(올해 12월말까지) 2. 주택판 에코포인트제도 실시
국제표준화	1. 리튬전지 국제화표준화전략 검토 실시
긴급경기대책	1. 긴급보증 36조 엔을 준비, 2월15일부터 실시

○ 도시바, 플래시메모리 신공장 대규모 투자

- 도시바는 10일, 8,000억 엔을 투자해 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발표
-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이면서 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보류했던 공장 건설에 착수하기로
- NAND형 메모리 : 1위 삼성전자(41%), 2위 도시바(32.3%), 3위 하이닉스(9.5%)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일본의 전기자동차산업 동향과 시사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10. 2월)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제반 인프라 구축 등의 장기적이고 폭넓은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당초 상용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친환경차가 최근 빠른 기술발전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출현 등으로 해당 시장이 예상보다 조기에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하이브리드차 경쟁에서는 도요타, 혼다 등 일본기업들이 한발 앞서고 있고, GM 등 미국기업들은 PHEV와 전기차 개발에, VW · BMW · 벤츠 등 유럽업체들은 클린디젤 엔진 및 디젤하이브리드차 개발에 주력
-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등 자동차업체는 전지업체들과 자동차용 2차 전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전지업체들도 제휴와 합병을 통하여 생산능력 확충과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 · 관 · 학이 일체가 되어 1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
 - 일본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후발주자이기는 하나 친환경차 분야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산업이며, 기후변화 및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유망한 산업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함
 - 친환경차 개발경쟁은 기업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해야할 것임

【일본관련 주요 보고서】

- 『JAL의 재생』 국토교통성 위원회, 2월 9일
 - JAL의 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재무체질 개선보다도 경영유지·개선에 필요한 수준까지의 재건과 이용자에 대한 양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서 재생하는 것임
- 『경기 Watcher 조사』 내각부, 2월 8일
 - 1월 현상판단 DI는, 전월대비 3.4포인트 상승한 38.8이 되고 2개월 연속 상승. 선행판단 DI도 가계부문에서는 환경자동차의 구입에 대한 보조·감세, 가전에너지포인트 제도, 주택판 에너지포인트 제도의 효과 등에 의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EV사업은 실패한다』 JBPress, 2월 8일
 - 선진국의 상식을 그대로 신흥국 비즈니스로 전개하면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기는커녕, 선행투자의 회수도 어려워지는 가능성이 있음. 일본이 EV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탈선진국 전략이 필요함

【금주의 일정】

2010. 2월	주 요 일 정
2월 8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12월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 1월 경기조사(내각부) ◦ 경단련 미타라이회장 기자회견
2월 9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특정서비스산업통계 발표(경산성)
2월 10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카다 외상 한국방문(11일까지) ◦ 미국하원 도요타에 대해 공청회 개최 ◦ 12월 기계수주 발표(내각부) ◦ 1월 기업물가지수 발표(일본은행)
2월 11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서울)
2월 12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소비자동향조사(내각부) ◦ EU GDP발표

□ 파트너를 찾습니다

1. [한국의 미술품과 전통공예품]을 수입하고 싶다고 의뢰해 왔습니다.

☞ 의뢰기업명 : 톱아트(일본의 미술품, 공예품 통신판매사)

2. [(자동차용)사출성형금형]을 수탁생산해줄 한국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 의뢰기업명 : 일본 기타큐슈시 소재 '미시마코산'

☞ 한국기업의 조건 : 현대, 기아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와의 거래관계에 있을 것

3. 일본의 투자전문기관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한국내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4. 한국기업에서 [주파수변환장치용변압기]를 조달 받고 싶다는 일본기업의 의뢰가 있었습니다.

☞ 의뢰기업명 : 北芝電氣株式会社(기타시바전기주식회사)

☞ 의뢰안건 : 주파수변환장치용변압기 메이커로부터의 견적제공 희망

• 희망가격 450만엔이하/대

• 지불조건 T/T • 운송조건 FOB

(우선, 상기조건대로의 견적을 제공받길 원합니다.)

☞ 한국기업에의 확인내용

• lead time • 기업정보

5. 한국으로부터 [폴리카보네이트 파이프]를 조달하고자 한다는 의뢰가 있습니다.

☞ 구입회사 : 싱크로테크

☞ 상품명 : 폴리카보네이트 파이프(φ16、L = 802) 압출품 두께 1mm

(제1희망) 테이진 판라이트 광확산 그레이드 ML2205상당품

(제2희망) 테이진 판라이트 표준품 1102, 1103, 1105

*테이진 상당품 이외의 것도 可

☞ 용도 : 조명기구

☞ 수량 : 총 4회(1회차 1,500개, 2회차 5,000개, 3회차 10,000개, 4회차 15,000개)

*주문회차별 견적 희망

☞ 도착지 : 일본 요코하마 항

* 관심있으신 회원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비즈니스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전재용 선임연구원 / Tel : 02-3014-9845 / jyjun@kjc.or.kr)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2010년 4월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300여명이 매년 4월 정례적으로 만나 양국 기업인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한일 간의 경제현안 사항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는 2010년 4월 14일(수)~17일(토) 까지 일본 오카야마(岡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969년 이래 제4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2월 초에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일정 수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관심 있는 회원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회의개최(안)

- 개최기간 : 2010년 4월 14일(수) ~ 17일(토)
- 개최장소 : 일본 오카야마시(호텔 그란비아 오카야마)
- 규 모 : 한일 양국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300여명

| 한국측 : 약 150여명 |

- 단장 :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 (효성·전경련 회장)
- 단원 : 경제5단체장 및 삼성, 현대 등 주요기업 대표, 관련단체 등

| 일본측 : 약 150여명 |

- 단장 : 일한경제협회 飯島英胤(IJIMA Hidetane) 회장 (도레이 특별고문)
- 단원 : 경단련 회장 등 주요경제단체장, 미츠비시, 도시바 등 주요기업 등

- 주최기관 : (사)한일경제협회, (사)일한경제협회

■ 기타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논의희망 테마 등이 있으시면 수시로 우리협회에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문은 2월 초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 조덕묘 부장 TEL : 3014-9855 / E-mail : chodm@kje.or.kr

